버블론 아니지만 비용우려는 존재, 마이크로소프트 급락

Market 황산해 _ sh.hwang@ls-sec.co.kr
Quant 고세은 _ kose@ls-sec.co.kr

갈라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버블론은 아니지만 나스닥 약세

미 증시는 DOW +0.11%, S&P 500 -0.13%, NASDAQ -0.72%, Russell +0.0%로 혼조세. 메타(+10.4%)와 마이크로소프트(-10.0%)가 실적발표 이후 주가 엇갈린 영향으로 나스닥 중심의 약세. 다만 시장 전반의 AI 버블 또는 회의론으로 연결되기보다 비용 부담을 상쇄할 재료 존재 유무에 따른 개별 종목 움직임으로 국한. MS는 클라우드 Azure 사업부가 마의 40% 성장 벽을 넘지 못했으나 Meta는 AI 활용 광고 노출과 단가 개선 확인

또한 빅테크들의 CAPEX 지출은 지속됨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 전력, 인프라 관련 업종들도 견조한 모습. 다만 소프트웨어 업종은 급락. 시장은 AI 의 등장이 S.W 산업의 라이선스 및 워크플로우를 다시 경쟁체제로 복귀시켰다고 평가하며 우려. 서비스나우(-9.9%)는 호실적 발표에도 급락

한편 다우를 중심으로 경기민감주는 강세. IBM, 허니웰, 캐터필러 등이 견조한 흐름 보였으며 미국의 수입 증가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감도 회복

미 국채 금리는 2Y 3.57%(-0.0bp), 10Y 4.24%0(-0.1bp)로 보합. 유가는 WTI 기준 +3.6% 상승한 $65.5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부각됨에 따른 상승. 브렌트유는 장중 $70 선 터치. 금은 +1.3% 상승한 온스당 $5,411 기록했는데 장중 $5,600 선 근접 후 매물 출회

미국의 수입 증가, 재고 축적과 투자의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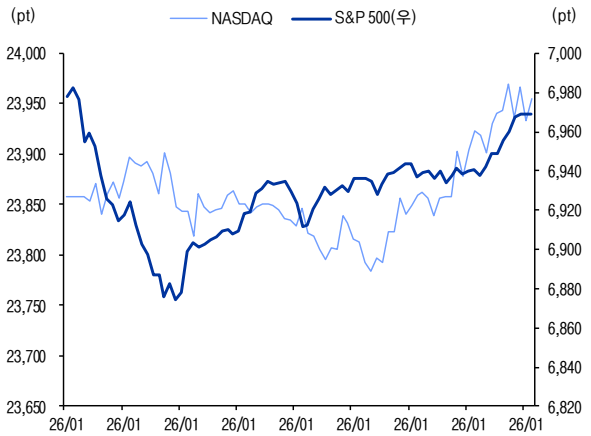
미국의 수입 증가에 따른 재고 축적 및 투자 기대감 확대. 11 월 무역수지는 568 억 적자로 컨센(-405 억달러) 대비, 그리고 전달(-276 억) 대비로도 적자폭 확대. 수출이 -3.6%MoM 감소한 가운데 수입은 +5.0%MoM 증가한 영향. 컴퓨터, 반도체와 같은 자본재 수입 증가분이 기여. 수입액의 경우 지난 3 월 고점 이후 추세적 하락세였으나 10 월 이후 반등 시도하는 모습

애틀란타 연은 GDP Now는 무역적자폭 확대를 반영, 4Q25 성장률을 연율 5.4%→4.2%로 하향조정. 다만 대체로 순수출 기여도분의 영향이며 PCE(개인소비지출) 기여도는 2.16%p→2.10%p 로 소폭 하향조정. 비거주 민간투자 기여분은 오히려 0.23%p→0.45%p 로 대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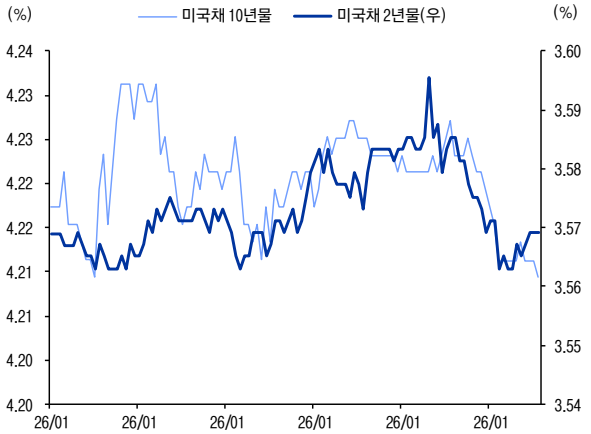
높아지는 이란 공습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근방에 대규모 함대와 공습전력을 배치함에 따라 긴장감 확대.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지도부 표적 타격을 검토 중이란 소식. 이란측은 미국의 공격 즉시, 미군 기지와 항공모함 공격 의지를 밝혔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연초 이란 내 시위대 보호 명분으로 군사 행동을 언급했으나 현재는 핵무기 금지 합의를 재료로 압박하는 양상. Polymarket 상으로는 미국이 이란을 6/30 내 공습할 확률 68%, 2/1 은 24%로 예상 중

● Global 주요 증시



● FICC



특징주: 희비 엇갈리는 MSFT-META, AAPL 중국 실적 강세

마이크로소프트: MSFT	-10.0%, 클라우드 성장 둔화와 해명

전일 장 마감 후 2FQ26 실적발표. **실적 자체는 컨센 상회했으나, 클라우드 성장 둔화가 투자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함**. 이에 주가는 '20년 이후 최대폭 하락. 클라우드(Azure) 매출은 +39%YoY 확대되었는데, 전분기 +40%YoY에서 소폭 둔화한 것. 그간 동사는 클라우드 성장폭이 '마의 40%' 상단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주목되어 온 바 있음. 공격적 투자 기조 유지하는 가운데 확인한 성장 둔화는, 시장 우려를 강하게 자극. **관련해 CFO는 자사 내부 수요 우선시 원칙을 언급. 즉 고객에게 더 많은 인프라(GPU 등)를 할당한다면, 해당 부문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 이후 주요 IB 의견은 엇갈리는 양상. UBS의 경우 Copilot 사용량 둔화세에 기인해 보수적 스탠스 표명. Bernstein은 경영진이 단기적 주가 상승보다는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위 중임을 주목. 한편 함께 실적 발표한 메타(+10.4%)는 투자 확대 용인되는 호실적 발표하며 주가 강세

마스터카드: MA	+4.3%, 여전히 견조한 소비

4FQ25 실적발표. 매출 $8.81B, EPS $4.76로 컨센(매출 $8.78B, EPS $4.24) 상회. 구체적으로, 총 결제액을 뜻하는 GDV는 +9.8%YoY로 견조한 성장세 유지. **CEO는 견고한 거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소비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강한 노동 시장과 임금 상승률, 주식시장 랠리 지속 등이 견조한 소비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 더해 애플 카드와의 독점적 네트워크 유지, 월마트-샘스클럽의 공동브랜드 계약 체결 등 각종 전략적 핵심 분야에서의 장기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 또한 스테이블코인과 AI 기반의 에이전틱 커머스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임을 밝힘. 한편 '26년 순매출 가이던스는 10% 초반 범위의 성장률을 전망

애플: AAPL	+0.7%, 마감 후 +0%대 상승, 아이폰 의외의 중국 흥행

장 마감 후 1FQ26 실적발표. 매출 $143.80B, EPS $2.84로 컨센(매출 $137.47B, EPS $2.67) 상회. 호실적의 핵심은 아이폰.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아이폰 매출이 $85.3B로 컨센($78.7B) 대폭 상회하며, 전년비 +23%YoY 증가**. 웨어러블, 서비스 사업부문이 컨센 하회한 실적 발표했으나, 아이폰 실적으로 커버된 것. **이는 실적 하방요인이었던 중국 시장 내 아이폰 매출이 대폭 확대된 영향.** 관련해 팀쿡은 "중국 본토 내 아이폰 업그레이드 고객 수가 역대 최고치"였음을 언급. 다만 호실적과 상반되는 리스크 요인도 존재. **CFO는 다음 분기 내 아이폰 공급 차질을 전망하기도**

샌디스크: SNDK	+2.2%, 마감 후 +12%대 상승, 폭발적 마진 개선

장 마감 후 2FQ26 실적발표. 매출 $3.03B, EPS $6.20로 컨센(매출 $2.67B, EPS $3.49) 상회. 컨센 대폭 상회한 마진과 함께 데이터센터 매출 성장세가 주목됨. **데이터센터 매출은 전분기 대비 +64%QoQ, 전년 대비 +76%YoY 급등**. CEO는 기업용 SSD 도입 가속화, 시장 수요 강화 등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라 강조. **가이던스 역시 긍정적으로 제시. 3FQ26 분기 가이던스 중간값은 매출 $46.0B, EPS $13로, 컨센(매출 $29.3B, EPS $5.1)의 약 두 배 규모로 제시**

기타 코멘트	RCL(+18.0%), FSLR(-10.2%), HOOD(-2.1%)

로얄캐리비안(+18.0%)은 크루즈 수요 강세, 리버 크루즈로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기반으로 컨센 상회한 가이던스에 주가 급등. **퍼스트솔라(-10.2%)**는 테슬라의 태양광 사업 진출 발표에 급락. **로빈후드 (-2.1%, 마감 후 +2%대 상승)**는 미국 정부가 신생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하는 '트럼프 계좌' 관리 운영사로 동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소식에 상승